

브라이언 구스타프슨 변호사는 피쉬 앤 리차드슨 로펌의 실리콘 벨리 사무소에 재직 중인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구스타프슨 변호사는 특허 출원 및 특허 심판 (Post Grant)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구스타프슨 변호사는 다양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분야를 다루어 왔습니다. 특히, 서치 엔진, 클라우드 컴퓨팅, 베투얼 머신, 전자 상거래, 통신, 머신 러닝, 기계 번역, 컴퓨터 아키텍처 및 프로세싱, 데이터 분류, 이미지 처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위치 기반 서비스, 음성 인식, 및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 심판 업무와 관련하여, 구스타프슨 변호사는 미국 특허청의 심판 (*ex and inter partes* reexamination) 및 재등록업무 (Reissue)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스타프슨 변호사는 스탠퍼드 로스쿨을 졸업한 2003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피쉬 앤 리차드슨 로펌에서 계속 재직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로스쿨에 재학 중에는 로렌스 레시그 교수의 연구 조교로 활동하며 레시그 교수의 저서 “The Future of Ideas: The Fate of the Commons in a Connected World” (2001)의 집필을 도왔습니다.

로스쿨 진학 이전에는 린필드 대학 물리학과에서 연구 조교로 활동하며 표면 물리학과 전계 방출 그리고 발광 현상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1996-1998, 1999), 물리학과 수업 조교로도 활동하였습니다 (1998-2000). 또한 미시간 주립 대학 물리 및 화학부에서 연구 펠로우로 활동하며 논문 “Nuclear Magnetic Resonance Determination of Protein Orientation”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